



경희대학교

2020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인문·체육계)

[6월 1일(토)]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성명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고, 다른 펜으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 공란으로 처리합니다.
4.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또는 감점 처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
5.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도구(수정액 또는 스티커)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0점 또는 감점 처리합니다.
6.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논제별로 요구한 분량 이내로 논술하시오.
7. 문항 별 분량 제한을 준수하고 답안지는 반드시 1장만 사용하시오.
8. 인문·체육계 문제지는 총 2장 3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나는 개울가로 간다. 가물로 하여 너무나 빈약한 물이 소리 없이 흐른다. 빠져넘어 올랐던 물줄기가 왜 소리를 치지 않나? 너무 더운다. 나뭇잎들이 다 축 늘어져서 허덕허덕하도록 더운다. 이렇게 더우니 시냇물인들 서늘한 소리를 내어보는 계간도 없으리라. 나는 그 물가에 앉는다. 앉아서, 자—무슨 제목으로 나는 사색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본다. 그러나 물론 아무런 제목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생각 말기로 하자. 그저 한량없이 넓은 초록색 벌판, 지평선, 아무리 변화하여 보았들자 결국 치열한 곡예의 역(域)에서 벗어나지 않는 구름, 이런 것을 건너다본다.

지구 표면적의 백분의 구십구가 이 공포의 초록색이리라. 그렇다면, 지구야말로 너무나 단조 무미한 채색이다. 도회에는 초록이 드물다. 나는 처음 여기 표착(漂着)하였을 때, 이 신선한 초록빛에 놀랐고 사랑하였다. 그러나 닳새가 못 되어서 이 일망무제(一望無際)의 초록색은 조물주의 물취미와 신경의 조잡성으로 말미암은 무미건조한 지구의 여백인 것을 발견하고,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쩔 작정으로 저렇게 퍼러나? 하루 온종일 저 푸른빛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오직 그 푸른 것에 백치와 같이 만족하면서 푸른 채로 있다.

이윽고 밤이 오면 또 거대한 구덩이처럼 빛을 잃어버리고 소리도 없이 잔다. 이 무슨 거대한 검은이나.

이윽고 겨울이 오면 초록은 실색(失色)한다. 그러나 그것은 남루를 갈기갈기 찢는 것과 다름없는 추악한 색채로 변하는 것이다. 한겨울을 두고 이 황막(荒漠)하고 추악한 벌판을 바라보고 지내면서, 그래도 자살 민절(悶絶)하지 않는 농민들은 불쌍하기도 하려니와 거대한 천치다.

그들의 일생이 또한 이 벌판처럼 단조한 권태 일색으로 도포된 것이리라. 일할 때는 초록 벌판처럼 더워서 숨이 각각 막히게 싱거울 것이요, 일하지 않을 때에는 겨우 황원(荒原)처럼 거칠고 구지레하게 싱거울 것이다.

[나]

물건들이 시골의 앞마당에 자꾸 쌓이자 내 작업도 톱과 망치, 드라이버만으로 부족해 제대로 된 공구들이 조금씩 갖춰지기 시작했다. 드릴과 전기톱, 그라인더 등이 그것이다. 잘라 낸 송판과 대패질을 새로 한 각목들이 설계대로 조립되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누더기 탁자가 탄생한다. 잠깐 딱딱거리면 의자도 생긴다. 널찍한 개집도 만들었다. 균형을 맞추느라 자꾸 덧대다 보니 내 작품들은 좀 무거운 게 흠이다. 그렇지만 내 조악한 목공 작품들을 친구들은 아주 좋아한다. 이 엉터리 무면허 목공에게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독서대도, 앉은뱅이 탁자도 주문받았다. 주문에 고무된 나는 주위 온 나무들로 뒤편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행복한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그뿐인가, 딸에 키에 맞춰 화장대도 만들어 주었다. 딸에는 결혼할 때 갖고 가겠다고 기뻐했다. 그리고 보니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마당에서 썰매도 만들어 주셨고, 병정놀이 때 쓸 멋진 나무칼도 깎아 주셨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내 책상 위의 작은 책꽂이 하나는 돌아가신 아버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사람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도시로 몰리고 손끝 하나 까딱 않고 뒤편 쉽게 사들이면서 타고난 손의 기능은 퇴화하기 시작했다. 오래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는 일보다는 새것을 사는 게 더 멋진 삶이라고 광고는 설 새 없이 부추겼고,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쉽게 굴복했다. 유한한 자연 자원과 그것들이 사람한테 오기까지 걸린 시간에 모두들 무감각해져 버렸다. 이런 무신경과 난폭한 낭비는 정말 별 볼 것이 아닐 수 없다.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고작 태우거나 묻어 버리는데, 묻어도 능사가 아니지만 태우면 더욱이나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든다. 이른바, '불필요한 생산'이다. 이렇게 과감한 소비 생활은 외양이 아무리 화려해도 문명이 라는 이름의 야만과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어찌 생각하면, 모두들 허무주의자들 같기도 하다.

<뒷면에 계속>

“지구라는 우주선에는 승객은 없다. 모두 승무원일 뿐이다.”라고 말한 이는 맥루한이다. 이 행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커녕, 시방 우리는 오만한 승객인 양 착각의 삶을 살고 있다. 물에 담가 둔 버드나무 토막을 보고 사람들이 “어쩌면 살겠네!”라고 한마디씩 건넨다. 나무는 아마 자신을 두고 한 소리라 알아듣지 않겠나 싶다. 살든 못 살든, 물이 좀 올랐다면 대문 옆에 심을 생각이다.

[다]

잠시 농업혁명을 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1만 년 전 밀은 수많은 잡초 중 하나일 뿐으로서 중동의 일부 지역에만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과 몇 천 년 지나지 않아 세계 모든 곳에서 자라게 되었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진화의 기본적 기준에 따르면 밀은 지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식물이 되었다. 북미의 대초원 지역 같은 곳에는 1만 년 전 밀이 한 포기도 없었지만 지금은 수백 킬로미터를 걷고 또 걸어도 밀 이외의 다른 식물을 볼 수가 없다. 세계적으로 밀이 경작되는 지역은 225만 제곱킬로미터쯤 되는데 이는 브리튼 섬(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포함)의 열 배에 이른다.

어떻게 이 잡초는 그저 그런 식물에서 출발해 어디서나 자라는 존재가 되었을까? 밀은 호모 사피엔스를 자신의 이익에 맞게 조작함으로써 그렇게 해낼 수 있었다. 약 1만 년 전까지 이 유인원은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상당히 편안하게 살고 있었으나, 이후 밀을 재배하는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2천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전 세계 많은 지역의 인간은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밀을 돌보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었다.

밀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밀은 바위와 자갈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피엔스는 밭을 고르느라 등골이 휘었다. 밀은 다른 식물과 공간, 물, 영양분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타는 듯한 태양 아래 온종일 잡초를 뽑는 노동을 했다. 밀은 병이 들기 때문에, 사피엔스는 해충과 마름병을 조심해야 했다. 밀은 자신을 즐겨 먹는 토끼와 메뚜기 떼에 대한 방어책이 없었기 때문에, 농부들이 이를 막아야 했다. 밀은 목이 말랐기 때문에, 인간들은 샘과 개울에서 물을 끌어다 냈다. 밀은 배가 고파서 때문에, 사피엔스는 밀이 자라는 땅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동물의 변을 모아야 했다.

사피엔스의 신체는 이런 과업에 맞게 진화하지 않았다. 사과나무에 기어오르고 가젤을 뛰어서 뒤쫓는 데 적응했지, 바위를 제거하고 물이 든 양동이를 운반하는 데 적합한 몸이 아니었다. 인간의 척추와 무릎, 목과 발바닥의 장심(발바닥의 오목한 부분)이 대가를 치렀다. 고대 유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업으로 이행하면서 디스크 탈출증, 관절염, 탈장 등 수많은 병이 생겨났다. 새로운 농업노동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사람들은 밀밭 옆에 영구히 정착해야만 했다. 이로써 이들의 삶은 영구히 바뀌었다. 우리가 밀을 길들인 것이 아니다. 밀이 우리를 길들였다. ‘길들이다, 가축화되다’라는 뜻의 단어 ‘domesticate’는 ‘집’이라는 뜻의 라틴어 ‘domus’가 어원이다. 집에서 사는 존재는 누구인가? 밀이 아니다. 호모 사피엔스다.

[라]

사르키는 1815년에 사망하여 2002년에 매장되었다. 그녀의 유골에는 먼지가 쌓인 적이 없었다.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호텐토트의 비너스는 유럽의 과학, 예술, 문학, 철학, 대중문화에 등장해 인종적·성적 편견에 찬 ‘죽음의 무도(the macabre dance)’를 추도록 강요받았다. 유럽의 인종주의는 사르키를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로 만들었다. 췌장과 해부를 겪은 사르키의 유해는 사후 보복을 감행하는 유령이 되었다. 사르키의 유해를 통해, 서양 제국주의의 비인간적 측면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었다.

해부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는 “신체를 훼손하면 진리가 나타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파리 자연사박물관에 갇힌 사르키의 해부된 신체는 유럽에서 가장 자주 분석된 표본이 되었다. 그사이 그녀의 존재를 둘러싼 술한 전기적 사실을 과학의 대상이란 사후의 짐 밑으로 파묻어버렸다.

200여 년간 사르키의 뼈대는 덜거덕거렸고 숨이 멈춘 뇌는 해부되었으며 생식기는 호기심어린 유럽 남성들의 손가락 세례를 받았다. 이들은 알코올에 절인 사르키의 신체기관이 아프리카 여성의 성이란 ‘어두운 대륙’의 비밀을 풀어줄 것이라 여겼다. 말없이 나약하게 누워 있는 사르키의 사체를 훼손함으로써 과학자들은 피기스롭고 변태적인 이론을 만들고, 그 위에 인간집단 간에는 생물학적·인종적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덧씌웠다. 더불어 그들은 인간 중 ‘호모’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이 있으며, 인종 역시 뛰어난 인종과 열등한 인종으로 분류하고 차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폐기 된 동기는 자명했다. 권력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드 블랭벨(1816)과 퀴비에(1817)는 사르키의 유해에 과학적 인종주의라는 주형을 겹쳐놓았다. 과학자, 인종학자, 인류학자, 철학자, 심리학자가 그것을 계승했다. 과학적 인종주의와 우생학이 판치던 시기에 사르키의 해부된 시신은 인종은 다양하며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신념을 강화하는 궁극의 표본으로 이용되었다. 이 사이비 과학은 존재의 연쇄라는 진화 단계에서 유럽인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앉아 있고, 반대로 아프리카인은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호텐토트’와 ‘부시맨’이라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인종은 동물 종과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사라진 고리와 같다고 보았다. 즉 퇴화하고 열등한 존재로 알려진 ‘호텐토트족’은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를 배정받았던 것이다. 영국의 제국주의는 이 사이비 과학을 남아프리카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적극 활용했다. 그리고 과거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완벽하게 그 뒤를 이었다.

[마]

민을 수 없다. 저것들도 먼지와 수분으로 된 사람 같은 생물이란 것을.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시멘트와 살충제 속에서만 살면서도 이렇게 비대해질 수 있던 말인가. 살덩이를 녹이는 살충제를 어떻게 가는 혈관으로 흘려보내며 딱딱하고 거친 시멘트를 똥으로 바꿀 수 있던 말인가. 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 찢덩이의 근육에서나 보이는 저 고감도의 민첩성과 기동력 앞에서는.

<뒷면에 계속>

사람들이 최초로 시멘트를 만들어 집을 짓고 살기 전, 많은 벌레들을 썩까지 일시에 죽이는 독약을 만들어 뿌리기 전, 저것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 흙과 나무, 내와 강, 그 어디에 숨어서 흙이 시멘트가 되고 다시 집이 되기를, 물이 살충제가 되고 다시 먹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빙하기, 그 세월의 두꺼운 얼음 속 어디에 수만 년 썩지 않을 금속의 씨를 감추어 가지고 있었을까.

로봇처럼, 정말로 철관을 온몸에 두른 벌레들이 나올지 몰라. 금속과 금속 사이를 뚫고 들어가 살면서 철관을 왕성하게 소화시키고 수억 톤의 중금속 폐기물을 배설하면서 불쭉불쭉 자라는 잘 진화된 신형 바퀴벌레가 나올지 몰라. 보이지 않는 빙하기, 그 두껍고 차가운 강철의 살결 속에 씨를 감추어 둔 채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아직은 암회색 스모그가 그래도 맑고 희고, 폐수가 너무 깨끗한 까닭에 숨을 쉴 수가 없어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뜬 채 잠들어 있는지 몰라.

[마]
토마스 베리는 '권리'를 법률가들이 통상 사용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2001년 4월 예일리 회의에 참석한 그는 「권리의 기원과 문화 그리고 역할」에서 권리라는 용어의 사용에 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권리라는 개념을 인간의 의무, 책임 그리고 핵심 본성을 이행하고 실현할 인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이를 유추한다면, 다른 자연적 실체도 지구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실현할 권리자격이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지구는 주체들의 친교이고, 권리는 인간의 법학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기원하는 데서 기원한다는 베리의 명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지구 공동체의 다른 성원들 또한 권리를 가진다고 승인하지 않으면서 인간은 인권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전체를 위한 권리가 존재함 없이 일부를 위한 권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공동체 성원들의 권리는 불가분적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공동체 내 인간 이외의 성원들의 법적 권리에 관한 논의는 법 시스템이 이 내재적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선택에 관한 것이 된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법 시스템 내에서 사용해온 권리 개념이 공동체의 다른 성원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는 단지 법 시스템이 다른 성원들의 존재 현실을 반영하기에 충분히 발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지구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흐를 수 있는 강의 권리, 유전적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게 존속할 종의 권리, 심지어 자신의 기후를 유지할 지구권 등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근시안적 법 시스템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문제 I]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문제 II]
제시문 [마]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1,001자 이상 ~ 1,100자 이하 : 배점 60점]